

일제강점기의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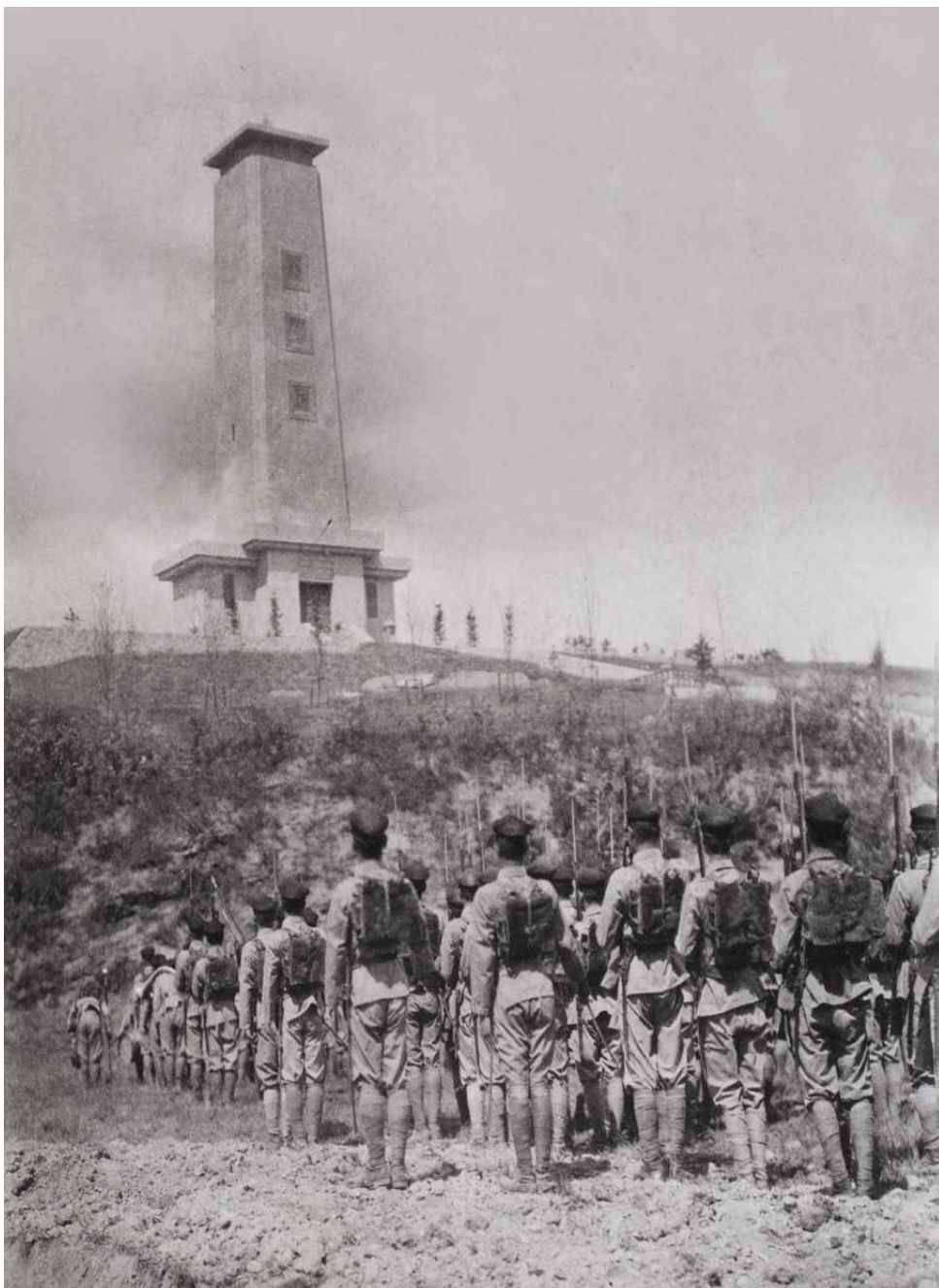


1966년 달성공원의 신사가 철거되기 전에 찍은 항공사진, 대구항토역사관 소장.



대구부청(시간과 공간연구소제공)

1909년 9월 동인동 5천평의 부지(현 대구시의회)에 신축한 목조 2층의 대구부청사.



교련훈련 1938년

대구의전 학생들이 총령탑 忠靈塔(높이 100척)이 보이는 공설운동장(현 캠프조지)에서 교련훈련을 하고 있다.

총령탑은 남구우체국 뒤편 높은 언덕부근에 있었는데 1946년 8월 15일 광복 첫돌을 기념하여 폭파, 철거되었다. 공설운동장은 1937년 세무감독국 청사건물로 협소해진 동인동의 공설운동장을 대체하여 조성되었으며 각종 대중집회와 군사훈련 등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사진출처 : 경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글 : 경북대학교 박물관



송별회,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제공

<약령시와 약전골목>



1936년의 약전골목.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제공

남성로 약전골목 김홍조건재약방과 태창당 건재약방의 모습. 김홍조는 개성 송상우씨가에서 약재기술을 터득한 한약계의 거상이다.



성모성당 : 1899년 로베르신부가 건립한 한옥성당. 대구 최초의 종교건물.
대구에 근대건축이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00년 2월 4일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소
실되었다. 옆의 해성재는 한문서당이다.



계산성당과 대구읍성 주승루(1900년대 초. 가톨릭 대구 교구청 제공)

1902년 11월에 준공된 계산성당과 함께 1906년 10월에 철거된 대구읍성 성벽, 주승루가 보인다. 성당의 오른쪽 2층 한옥 건물은 계산성당 부속건물로 한문서당이었던 해성재이다.



계산성당(1935년)

현재의 계산성당



경북지역 개신교 최초의 교회, 제일교회



대구제일교회는 1893년 4월 22일, 당시 부산선교지부에 주둔하던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배위량 목사가 경상도 북부지역 선교여행 중 대구 동성에 첫발을 디딤으로서 시작되었다. 대구 제일교회의 3번째 성전이 위치한 이곳은 1896년 미국 북장로교선교사가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올 때 여기에 있던 초가 5동과 와가 4동을 교회부지로 구입하여 1898년 와가 4동을 교회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북 최초의 기독교 교회인 남성정 교회가 창립된 곳이다. 초가에서는 대구 최초의 의학병원인 제중원(동산의료원의 전신)을 세워 서양의술을 소개하였고, 근대 학교인 희도학교, 대남학교, 신명학교를 세워 근대교육을 실시하였다.

출처 :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



대구의 길, 시가지의 형성과 가로망

일제 강점기의 최대 변화가, 북성로

식민지수탈자본의 현장, 태평로



대구역

약전골목으로
변한 남성로

4성로(1908)와 +자도로(1909)가 개통된 시기의 지도(경북대학교박물관)



1930년의 대구 항공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북성로. 1930년대 후반. 시간과 공간연구소 제공

북성로는 일제시대 원정통(元町通)으로 불렸다. 대구 상업의 중심지로 주점, 장신구점, 곡물회사, 석유점, 철물점, 양복점, 목재점, 목욕탕, 대구 최고의 백화점인 미나카이(三井) 등 좌우로 현대식 상설점포가 등장하였다. 당시 식당, 요리집, 영화관, 여관 등으로 가득 차 있었던 향촌동과 맞닿아 있어 대구 최대번화가로 자리 잡았다.



대구역(1905년 완공), 1920년대.
시간과 공간연구소 제공



대구역, 1930년대. 시간과 공간연구소 제공

광장 앞 버스 정류소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다. 대구역은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 건축된 건물로 목조 2층의 르네상스 양식에 준하는 일식과 양식의 절충식 건물이다. 당시 지방 철도역으로는 부산과 신의주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역사였으며 식당이 영업하고 있었다. 1976년 철거되었다.



중앙로, 1920년대? , 시간과 공간연구소 제공

대구역에서 남쪽으로 촬영한 것이다. 왼쪽 모퉁이에 안동행 버스 정류장과 여관, 오른쪽 모서리에 구주당 토산품가게가 있다. 멀리 앞산의 모습이 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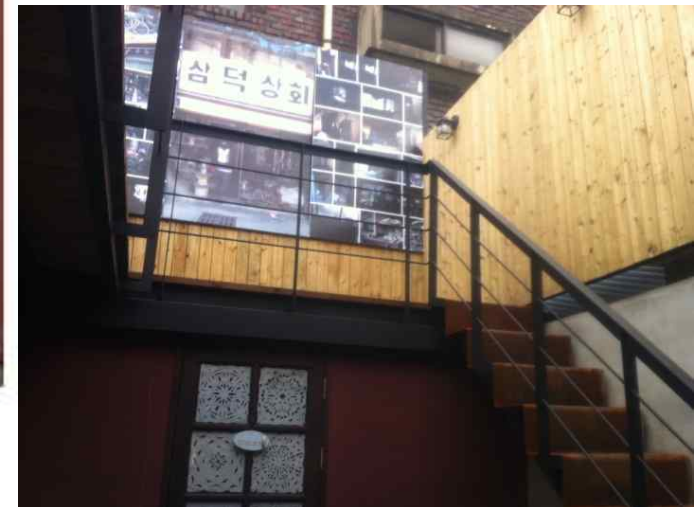


중앙로, 1920년대? , 시간과 공간연구소 제공

대구역에서 남쪽으로 촬영한 것이다. 오른쪽의 가장 큰 건물이 조선은행 대구지점이다. 자전거탄 사람, 인력거를 끄는 사람,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 나무지게를 진 사람 등이 대로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양쪽 길모퉁이 가로등에 버스정류장 안내판이 있다.

북성로 리노베이션과 장소 마케팅의 시작, 삼덕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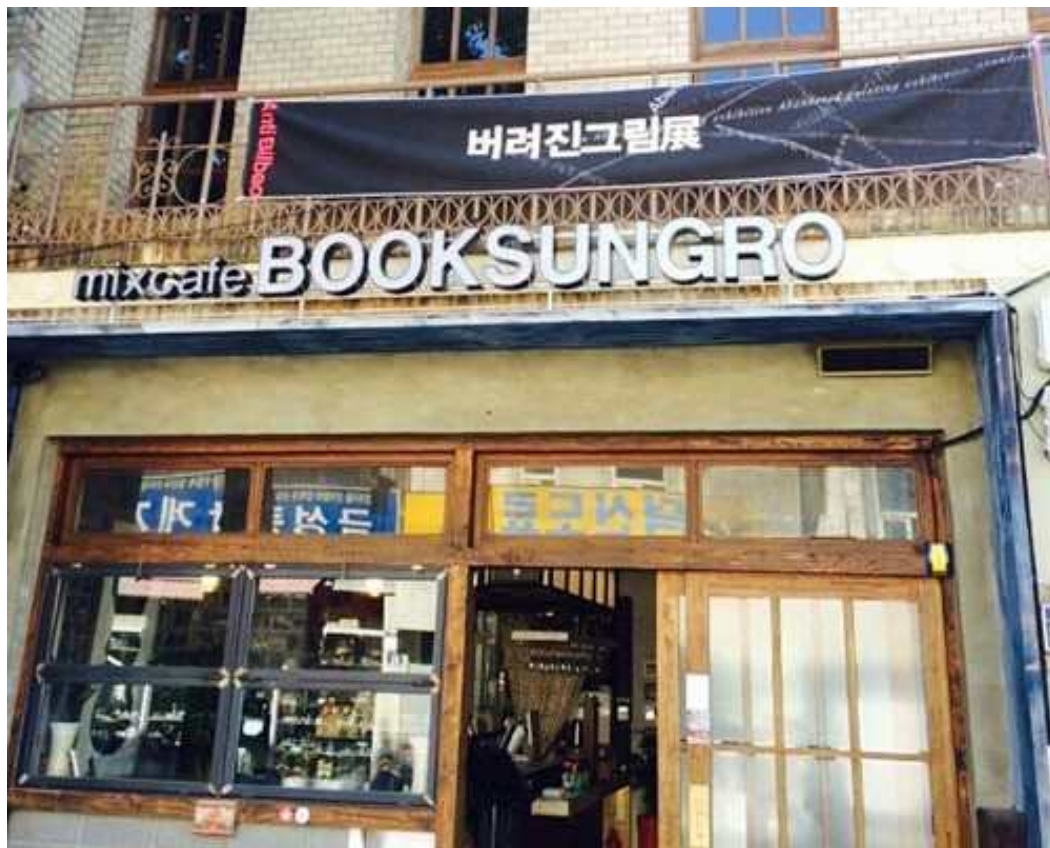


【대구=뉴스시스】 박광일 기자 = 지난 10월 27일 문을 연 'cafe 삼덕상회'. 이곳은 1930년대 지어진 일본식 근대건축물로 '대구의 재발견'이 임대,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게 됐다. pgi0215@newsis.com 2011-12-04

공구박물관



북성로 믹스카페



대구 근대골목(근대로의 여행)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체험여행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af55f079-93b5-4f2d-bc46-0848e95de04b



근대路의 여행

활성화

역사

?

근.현대

?

도시재생

장소 마케팅

?

대구



마무리

대구의 도심은 다른 대도시의 경우와 달리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경관이 전쟁의 피해를 비교적 적게 입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처 물리적 개발 사업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구도심을 중심으로 산재해있었던 고택이나 일본식가옥, 근대 산업시설 등이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구의 원도심부에 해당하는 중구는 많은 다른 지방도시의 원도심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및 중심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심부의 기반시설 노후화, 상업기능의 쇠퇴 등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심의 공동화현상, 사회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지의 쇠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도심재생 정책으로서 대구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브랜드로 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채택하였다. 여기에 정책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축적되어 있었던 시민단체들이 만들어낸 근대골목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든든한 기본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대골목이라는 장소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대구의 역사문화관광의 핵심적인 테마로 급성장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구의 도시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도심부의 길과 건축물이 장소마케팅의 주요한 소재로 사용되었고,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근대路의 여행’은 이제 대구시민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장소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대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정착되었다. ‘근대 路의 여행’이라는 대표적인 컨셉으로 진행되는 근대골목투어 프로그램은 대구 근대골목을 도심관광지로서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쇠퇴되고 낙후된 도심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구의 도시재생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가의 상승과 주민의 대체로 정의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도처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